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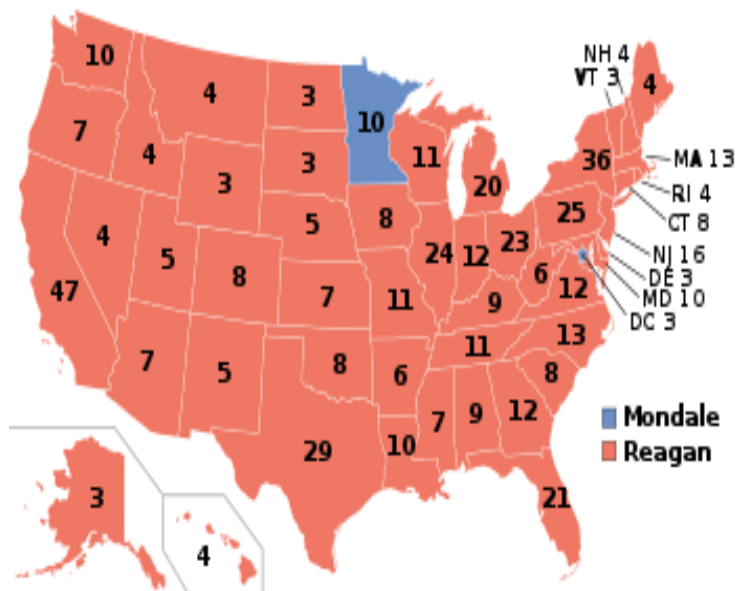
오바마 연합의 재건은 가능한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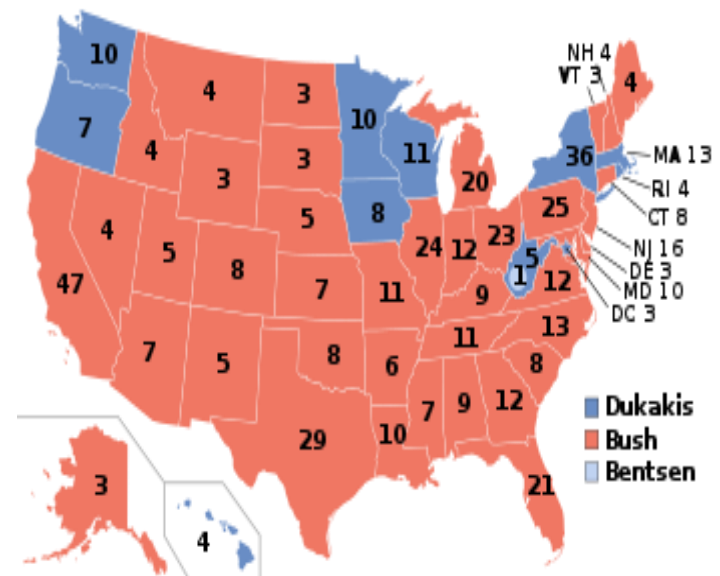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1984 presidential e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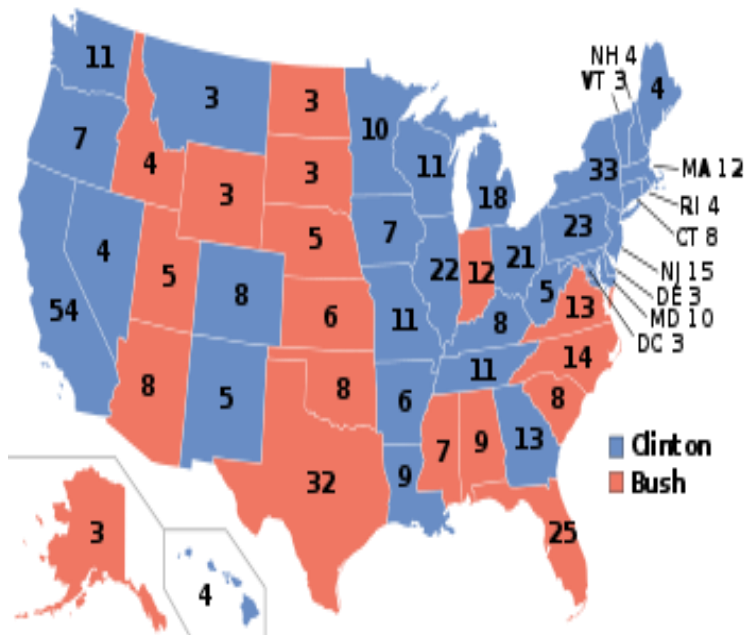


1988 presidential e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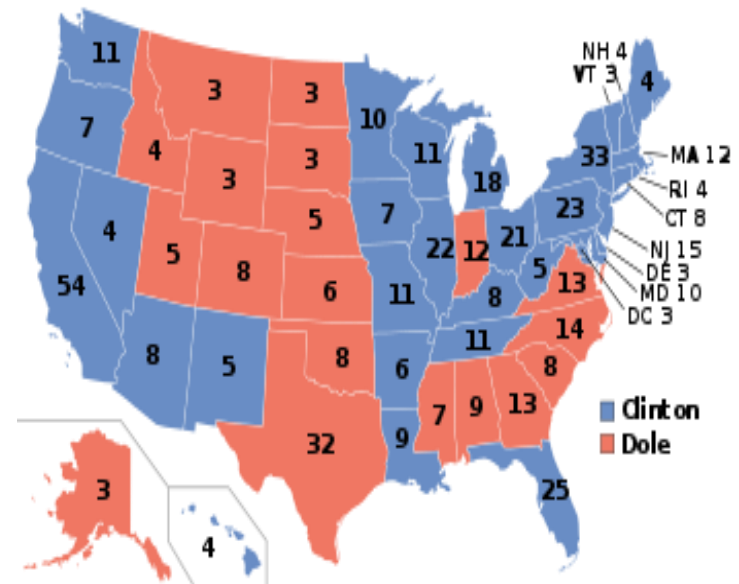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1992 presidential e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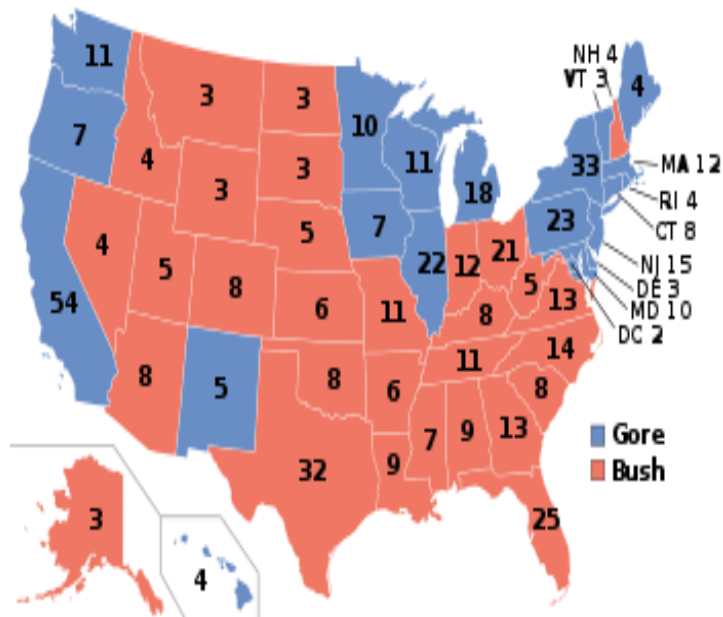


1996 presidential e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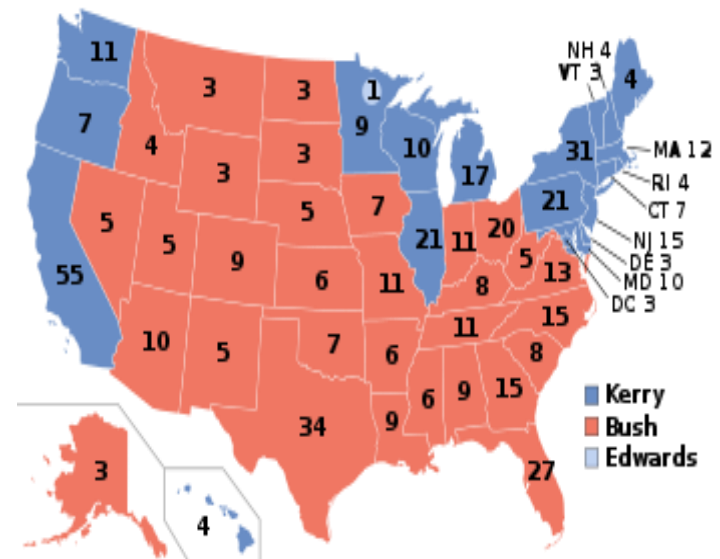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2000 presidential e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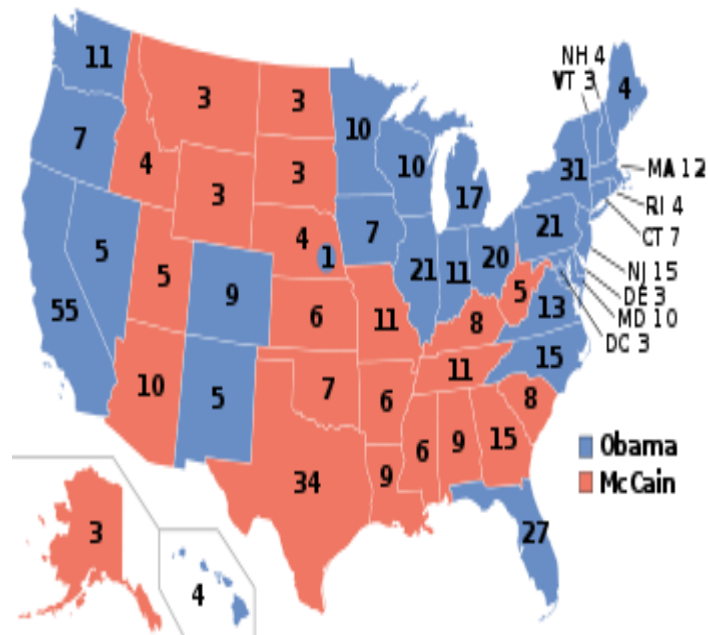


2004 presidential e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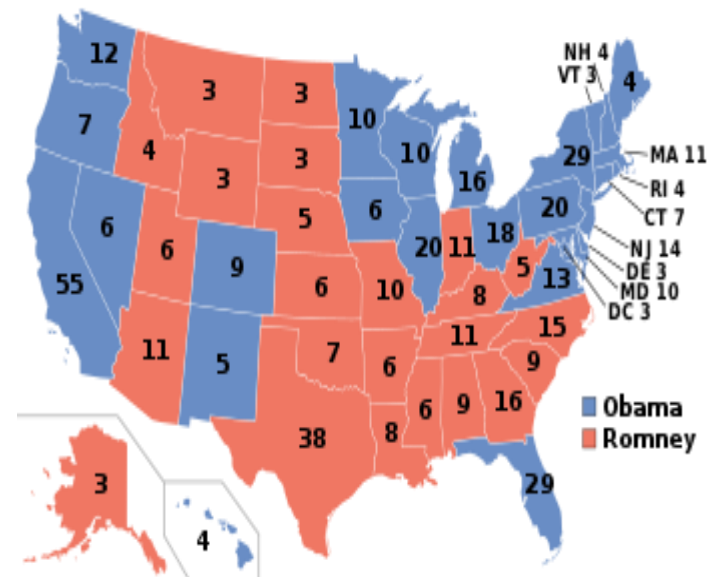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2008 presidential election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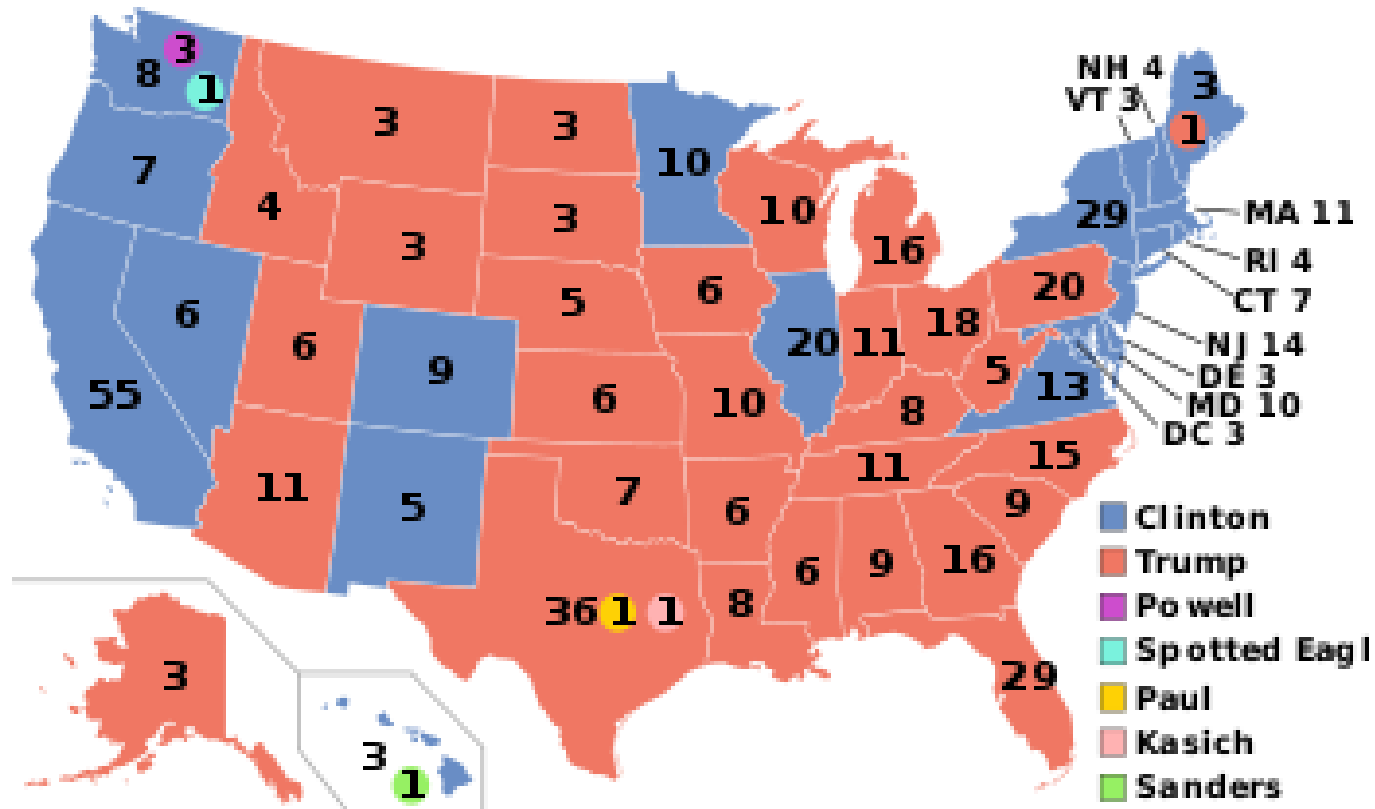


“오바마 연합 ”

- 2008년과 201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오바마에게 승리를 안겨준 유권자들의 집합을 오바마 연합(Obama coalition)이라고 부름.
- 오바마 연합은 흑인, 히스패닉, 여성, 무당파,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은 유권자들의 집합을 의미함.
- 이 중에서 인종과 교육수준 요인이 2012년 대비,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유권자의 특성임.



2016년 대통령 선거 결과



2016년 대통령 선거 결과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 됨
- **트럼프 득표수(득표율): 62,984,828 (46.1%)**
- **클린턴 득표수(득표율): 65,853,514 (48.2%)**
-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 306** (그러나 2명이 다른 선택을 하여 공식 결과는 304)
- **클린턴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 232** (그러나 5명이 다른 선택을 하여 공식 결과는 227)



주목할 만한 결과들

- 미시간 (선거인단 수 16): 트럼프가 0.23%포인트 차로 승리 (2,279,543 대 2,268,839)
- 위스컨신 (선거인단 수 10): 트럼프가 0.77%포인트 차로 승리 (1,405,284 대 1,382,536)
- 펜실베이니아 (선거인단 수 20): 트럼프가 0.72%포인트 차로 승리 (2,970,733 대 2,926,441)
- 플로리다 (선거인단 수 29): 트럼프가 1.20%포인트 차로 승리 (4,617,886 대 4,504,975)

- 1988년 이후 최초로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
- 1984년 이후 최초로 위스컨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
- “러스트 벨트(Rust Belt)”에 거주하는 **교육수준이 낮은 백인들의 반란**이라는 평가가 가능했던 이유

- 만약 클린턴이 미시간, 위스컨신,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했다면 모두 46명의 선거인단을 추가로 확보하는 셈(총 278명)이 되므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것임.



투표율 변화 (2012년 대비 2016년)

출처: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012년 투표율 (%)	2016년 투표율 (%)	2016년-2012년 투표율 (%p)
미시간	백인(고졸 이하)	59.5	60.6	1.2
	백인(대졸 이상)	82.7	83.8	1.0
	흑인	62.5	61.3	-1.2
	라티노	58.2	45.7	-12.5
	아시아계	52.0	52.0	-0.9
펜실베이니아	백인(고졸 이하)	53.0	57.4	4.3
	백인(대졸 이상)	77.6	80.6	3.0
	흑인	65.4	65.1	-0.2
	라티노	45.1	50.6	5.5
	아시아계	45.8	54.1	8.3
위스컨신	백인(고졸 이하)	67.2	65.0	-2.2
	백인(대졸 이상)	88.4	86.1	-2.2
	흑인	74.0	55.1	-18.9
	라티노	52.5	46.7	-5.8
	아시아계	60.2	54.5	-5.8
플로리다	백인(고졸 이하)	58.1	65.0	6.9
	백인(대졸 이상)	78.8	81.6	2.9
	흑인	59.1	58.8	-0.3
	라티노	60.1	58.5	-1.6
	아시아계	50.7	56.1	5.4



투표율 변화

- 종합해서 보건대 트럼프에게 근소한 차이의 승리를 안겨준 주들에서 흑인 및 라티노 유권자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비해 덜 참여했고, 백인 유권자들,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 그렇다면 이러한 투표율 변화의 인종 간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투표율 변화: 설명

- 일반적인 해석은 카리스마 있고 신선한 이미지를 준 흑인 오바마와 달리, 백인 여성인 클린턴은 기성 정치인으로서의 진부한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지 못했다는 것.
- 하지만 2012년과 2016년 사이의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투표율 차이는 이들의 **투표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법과 제도**(투표자 신분증 법 voter id law, 중범죄자 투표권 박탈 felon disenfranchisement, 선거인 명부 삭제 voter purge, 등)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도 가능함.
- 즉, 참여의 의지와 능력이 있었던 일부 소수인종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장벽에 막혀 투표를 못했을 수도 있음.



투표자 신분증 법 (2018년 현재)

출처: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요구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신분증도 가능
엄격한 적용 (유권자가 신분 증명해야 함)	조지아 인디애나 캔자스 미시시피 테네시 버지니아 워싱턴	아리조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융통성 있는 적용 (주정부가 유권자 신분을 확인함)	아칸소 알라바마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알래스카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아이오와 켄터키 미주리 몬타나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투표 선택 변화 (2012년 대비 2016년)

출처: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012			2016			`16-`12 (%p)
		민주당 (%)	공화당 (%)	차이 (%p)	민주당 (%)	공화당 (%)	차이 (%p)	
미시간	백인(고졸)	44.3	54.3	-10.0	36.3	57.4	-21.1	-11.1
	백인(대졸)	51.9	47.0	4.9	46.2	48.0	-1.7	-6.6
	흑인	96.9	2.9	94.0	90.8	6.6	84.2	-9.8
	라티노	69.0	30.5	38.5	61.6	33.1	28.5	-10.0
	아시아계	54.6	43.9	10.7	49.7	42.0	7.8	-2.9
펜실베이니아	백인(고졸)	39.1	59.3	-20.3	33.6	62.3	-28.6	-8.4
	백인(대졸)	55.4	42.9	12.5	52.4	42.3	10.1	-2.4
	흑인	96.0	3.7	92.3	89.8	7.7	82.1	-10.2
	라티노	78.2	21.4	56.8	74.4	21.7	52.6	-4.1
	아시아계	63.1	34.9	28.2	62.5	31.3	31.2	3.0
위스컨신	백인(고졸)	46.6	52.0	-5.5	37.7	56.2	-18.5	-13.1
	백인(대졸)	55.3	43.6	11.8	54.5	38.6	15.9	4.1
	흑인	96.9	2.7	94.2	92.1	4.3	87.7	-6.5
	라티노	70.6	28.4	42.2	64.1	29.3	34.8	-7.4
	아시아계	58.7	38.9	19.8	53.2	37.4	15.8	-4.0
플로리다	백인(고졸)	36.0	63.0	-26.9	33.0	63.0	-30.0	-3.1
	백인(대졸)	42.9	56.4	-13.5	44.7	51.5	-6.8	6.7
	흑인	93.2	6.4	86.8	87.5	9.1	78.4	-8.4
	라티노	63.0	36.1	27.0	57.5	37.9	19.6	-7.4
	아시아계	46.6	51.4	-4.9	50.6	43.2	7.3	12.2



시뮬레이션

- **2016년 흑인 투표율과 투표선택 비율이 2012년의 그것과 동일했다면?**
 - 미시간: 1.3%p (클린턴 승리); 펜실베니아: 0.4%p (클린턴 승리); 위스컨신: 1.0%p (클린턴 승리); 플로리다: 0.1%p (클린턴 승리)
- **2016년 백인(고졸)의 투표선택 비율이 2012년의 그것과 동일했다면?**
 - 미시간: 5.5%p (클린턴 승리); 펜실베니아: 3.5%p (클린턴 승리); 위스컨신: 6.5%p (클린턴 승리); 플로리다: 0.1%p (클린턴 승리)
- **2016년 라티노의 투표선택 비율이 2012년의 그것과 동일했다면?**
 - 미시간: 0.0%p; 펜실베니아: 0.6%p (트럼프 승리); 위스컨신: 0.6%p (트럼프 승리); 플로리다: 0.1%p (트럼프 승리)



오바마 연합 재건의 딜레마

- **흑인**의 투표율을 높이고 그 집단으로부터 2012년 수준의 지지를 얻는 것이 민주당에게 중요함(identity politics).
 - 하지만 이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유권자들의 이탈이 우려됨.
- 투표율과 상관없이 **고졸 백인** 유권자로부터의 지지를 2012년 수준으로만 유지해도 민주당은 유리해짐(economic populism).
 - 하지만 이 경우 흑인 유권자들의 이탈이 우려됨.



민주당 경선

- 2020년 3월 3일 “수퍼 화요일” 이전 네 개의 주에서 예비 선거(primary election)가 있을 예정임.
- 이들 예비 선거는 후보의 “모멘텀”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 (과다 단순화의 오류가 있기는 하나) **아이오와**는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유권자, **뉴햄프셔**는 교육 수준이 높은 백인 유권자, **네바다**는 라티노 유권자,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흑인 유권자의 행태를 엿볼 수 있는 시금석임.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출처: New York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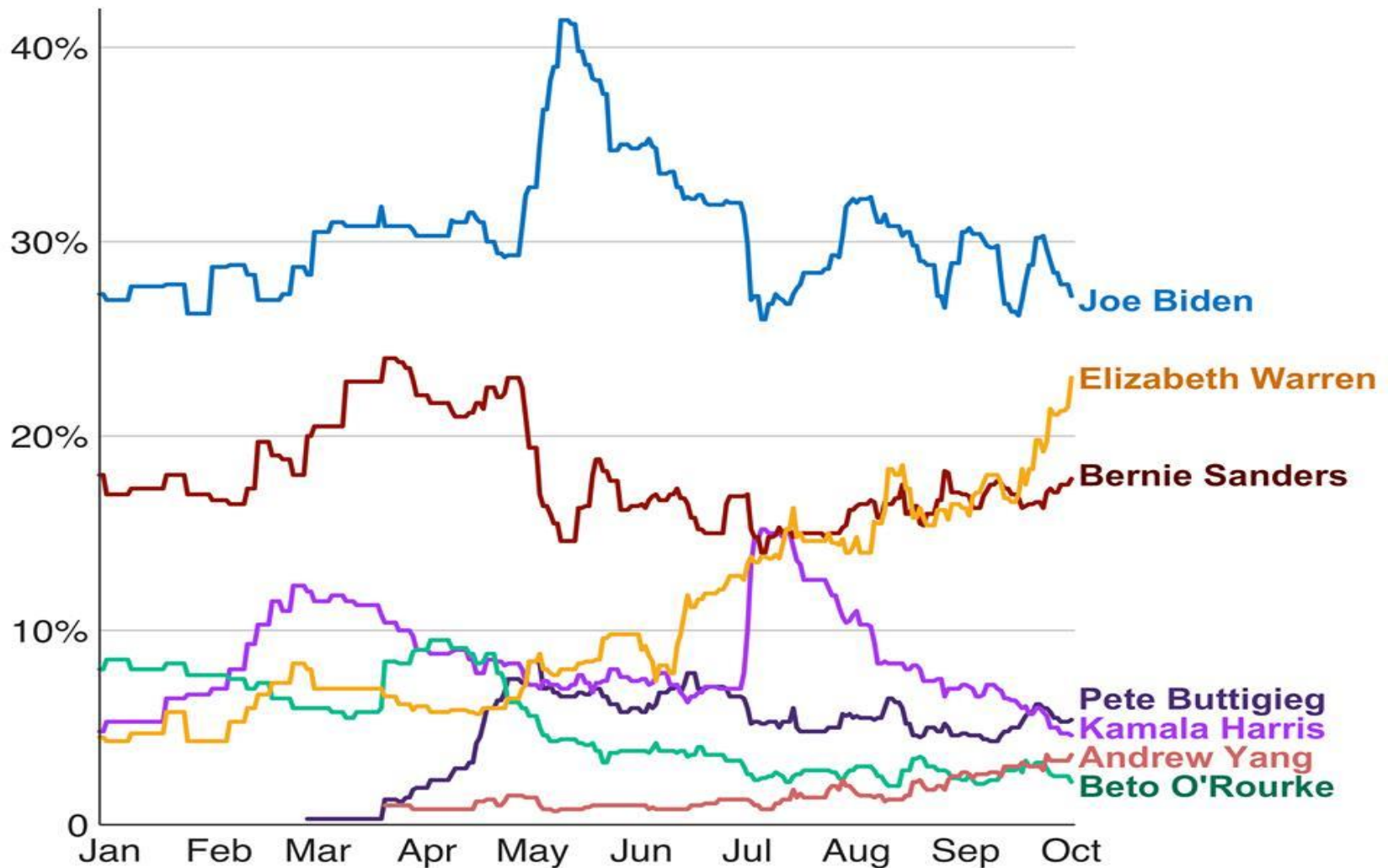


	전국	NH	IA	NV	SC
	10월 4일 현재 (평균)	9월 14일~9월 30일			
바이든	24	25	20	22	37
워렌	21	27	22	18	17
샌더스	16	12	11	22	8
해리스	5	3	6	5	4
부티제지	5	10	9	4	7
예비선거일		2020.2.11.	2020.2.3.	2020.2.22	2022.2.29.



The Democrats currently leading the polls

Primary candidates with a polling average of more than 2%



Source: RealClearPolitics (2 October 2019)

BBC



SOGANG UNIVERSITY

민주당 경선 전망

-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의 경우, 경제 영역에서의 소수자들을 포용할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러스트 벨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하지만 뉴잉글랜드 엘리트 백인 이미지로 흑인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역시 사실임.
- 전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그의 출신 지역(펜실베이니아 몰락한 공업도시)과 오바마의 후광 때문에 계급과 인종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음.
- 그러나 35년 넘는 상원에서의 경험이 기성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선거 운동의 메시지에 신선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유권자들로의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음.
- 바이든-워렌/바이든-샌더스 티켓은 나이가 많은 후보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매력 없음.



트럼프 재선 가능성?

- 1992년 당시 대통령 부시가 재선에 실패한 이후 지금까지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없었음
- 이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재선될 것이라 보는 시각이 일반적임
- 하지만 2016년 선거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재선이 만만치 않아보이기도 함
- 민주당이 위스컨신, 미시간을 되찾고,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중에서 하나만 더 가져가면 승리를 거머쥐게 됨
- **2018년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 위스컨신과 미시간이 민주당으로 다시 넘어올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임**
- 2018년 위스컨신 주지사 선거에서 현직자인 공화당 워커(Scott Walker)를 누르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 (49.5% 대 48.4%)
- 위스컨신 법무장관 (Attorney General) 선거에서도 현직자인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49.4% 대 48.8%)
- 2018년 미시간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 선거에서도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이김.



맺음말

- 2020년 트럼프의 재선을 낙관할만한 상황은 아님
- “오바마 연합”의 재건을 위해 적합한 민주당 후보는 바이든
 - 문제 1: 바이든에 대한 지지이기 보다 오바마에 대한 향수
 - 문제 2: 많은 약점들이 노출되어 있음
 - 문제 3: 신선함이 떨어짐
- 워렌 혹은 샌더스 후보의 경우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
 - <https://www.nytimes.com/2019/10/06/us/politics/elizabeth-warren-black-voters.html>